

투데이 칼럼

행복 메시지

모든 일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산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 앞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필계화' 되어 늘 나와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대표

친구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 하면서 나의 가치는 Discount하고 있지는 않은지 리더라 없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 앞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필계화' 되어 늘 나와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새 생명을 가진 병어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 신세가 된다고나 할까.
철저히 조건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자연은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아무리 멋지게 묘사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현상은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과감히 돌파를 하

면 그 모든 것이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그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먹었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다 이뤄지는 세상 이런 사는 재미가 덜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극복해야 할 만성적인 조건들을 찾아보시죠.
이제 시간 관계로 많은 것을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벌써 9월이네요.
우리 다함께 '조건 사냥'에 나서 보면 어떨까요.
물러서지 말고 과감히 맞서서 철저히 조건들을 깨부숴보면 어떨까요.
선택과 집중, 끈기 그리고 실천. 지금 당장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성공적인 삶, 행복을 위하여!

사설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에 대한 지원 연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는데 아직은 미답지 않다. 흠뻑가 거둬 목도 되고 있는데 시정태 마땅하다. 요즘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듣자니 우리 지역의 현안이 찬밥 신세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전북도와 각 시군은 힘내야 한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뛰어야 하고, 혁신도시 측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다시 도전해야 한다. 익산시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명실공히 국가 식품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하고 군산시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말겠다는 각오로 뛰어야겠다.
이같은 말은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다. 그래도 지금은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뛰어든 만큼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 측에서 인구 백만 자격론을 들고 나올 때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들고 나와야 한다. 전북에 광역시가 있다면야 정부의 말을 존중하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그게 없지 않은가 말이다. 전북 지역에 특례시마져 없다면 점차 지역의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전 프로젝트를 말했지만 그 성과가 피부로 감각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낙후와 관련해 도민의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제 뉘를 챙기는 역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다.
전북도는 전북의 뉘를 온전히 챙겨야 된다. 전북도 스스로 제 몫 찾기를 강조해 말했거니와 다른 광역 시도도 그것보다 역적스러워야 한다.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선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북도가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선도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면 더욱 좋다. 지역 발전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전북도는 물론이고 전주시와 익산시와 군산시의 실력발휘가 절실하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 희망의 근거가 돼야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겠다. 미취업 청년들이 '헬 전북'을 말하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여전히 탈진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이 있다. 열 명중 네 명꼴로 비경제 인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열몇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를 두고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말할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일하기 싫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분류된 이들은 일반 실업자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장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한 이는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관청은 일자리 마련의 책임은 전북도에 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업인들에게도 있고 일반 민간기업인들에게도 있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청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겠다.
기성세대는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 언론사들의 보도를 면밀히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지역의 취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니 답답한 세월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지역의 청년 고용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가 공감이 되는 거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관청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만들기엔 협조하는 척 했다가 그만 두기를 반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취업의지를 상실한 젊은 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달라는 부탁이다.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른들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매번 조사 내용이 보고될 때마다 전국 꼴찌 수준은 많이 안 된다.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자제언

아동 재학대,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방하자

언론을 보면 아직까지도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가정과 학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전체 사건 중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아동학대, 현대사회는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족관계의 양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힘들어졌다.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피해 아동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 정도뿐이다.

이마저도 형편이 녹록치 않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아동보호기관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로 반복되는 학대에 또 다시 아파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다가온 가정의 달,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기본 인권을 존중받고, 평화롭게 자라길 바란다.
백요셉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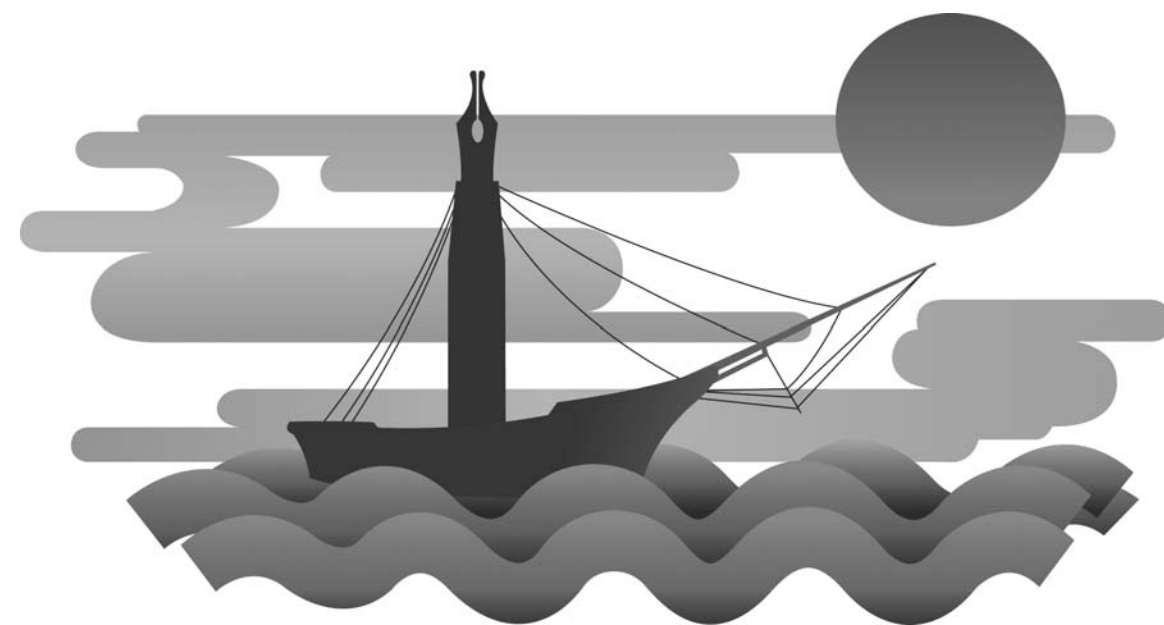
일본 새 국왕 나루히토와 마사코 비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가 5월 1일 국왕으로 즉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도쿄 도 구 공에서 마사코 비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사진은 왕실업무를 담당하는 공내청이 AP에 제공한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